

북침전쟁의 불을 달리는 북조선의 망동

얼마전 남조선에서 호전세력들이 남조선미합동군사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을 벌인데 이어 4월 18일부터 기본연습인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속에 남조선군은 이번 《한미합동군사연습의 목표가 북의 무력행동을 억제하며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로골적으로 떠들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정면대결하는 용납 못할 군사적도발이 아닐 수 없다.

공화국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을 등에 업고 어리석은 반공화국군사적대결경기를 부리는 남조선호전세력들에게 경계당몽하지 말며 대해서 엄숙히 경고하였다.

또한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우려하면서 남조선미합동군사연습을 반대배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미국과 함께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는 것은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실천에 옮기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각 미국의 식민지

주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무비의 절대적힘을 지닌 공화국을 감히 어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제 죽을줄 모르고 설치는 어리석은 자들의 가스로운 책이다.

지금 남조선호전파들이 이번 상반기 합동군사연습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다는니, 《컴퓨터모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이라니 하고 떠들고 있는 것은 저들의 범적적용계를 감추어보려는 한갖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아무리 요술을 부려도 외세와 손잡고 또 다시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참화를 들씌울 북침전쟁의 도화에 불을 달리는 저들의 반민족적책행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4월 12일부터 28일까지를 반미투쟁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각지에서 다양한 반미투쟁을 전개하면서 반침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진보적인 예술인단체들이 반미투쟁의 노래들을 적극 창작 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

들은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선제타격》을 운운한 윤석열과 미국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한미동맹》강화를 꾀하고 있는 보수적세력들때문이라고 하면서 반미투쟁장소에서 미국과 함께 윤석열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은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오랜 세월 함시적으로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저들의 대조선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겨레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남조선의 반통일호전세력은 이러한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수행에 적극 추종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은 민족은 굳게 단합하여 내외호전분자들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남조선미합동군사연습중단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



통일교실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반통일세력이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 다시말하여 우리 나라의 영구분열을 꾀하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음모양모로 장애를 조성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외세는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이다. 우리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 것도 외세이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외세이다. 미국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지배하려는 야

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민족내부에 반공과 불화를 조성하고 남조선통일장애를 동족과의 대결로 부추기며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무력중장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켜왔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며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침략적인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동족대결미치광이들도 반통일세력이다.

외세의 부추김과 조종됨에 력대 남조선보수통일배들은 분단의 장벽을 쌓고 북과 남사이의 정치, 군사적대결을 격화시켰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압살하려는 통일민주력량을 분열, 와해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여왔다.

사대와 외세 의존은 남조선의 약점이며 토벌병이다. 언젠가 남조선의 한 력사학자는 《민족의 참모습을 보라》라는 글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남이 사는 내 나라, 이것이 이남의 상징적인 대명사이다. 내적이면서도 사실상 내적이 아닌 남의 땅, 선조들이 창조한 유산들이 외세의 탐욕과 끊임없는 전쟁연습으로 무참히 약탈, 파괴되고 있는 곳이 다름아닌 이 나라이다.》

남이 사는 내 나라, 참으로 씁쓸한 평가이다. 사대와 외세 의존은 굴욕과 치욕의 대명사이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남조선당국의 행적은 민족자주가 아니라 굴종의 력사로 얼룩져 있다.

누구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 미국상선의 눈도장을 찍으려 선함으로 위싱턴으로 달려가고 미국의 승인과 지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걸으로는 《대통령》이라고

세를 부리지 않고 《대통령》을 주무르는 실제 주인은 백악관의 미국상선이다.

세에게 치외법적인 《지위》를 합법화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려지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뿐이다.

이외에도 남조선에 예측의 쇠사로 청정 없애면 굴욕적이며 예측적인 《조약》, 《협정》들은 허다하다. 정치공포부터 이런 형편이니 남조선경제 또한 더는 해

죽을 겨냥한 각종 군사적도발과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연습이 그칠새없이 벌어져 온 남조선땅이 침략의 전초지로 화하였다.

겨레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미국의 침략군사기지로 짓밟히고 있고 인민의 혈세도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미국에 강탈당하고 있다.

남조선은 군대에 대한 지

외세의 존은 파멸의 길

라코 떨어지게 될 것인가는 더 혼란 여지도 없다. 그것이 진보든 보수이든 바뀌는 《정권》마다 내지는 간판은 매번 각각이었지만 한번도 변하지 않은 사대와 외세 의존정책으로 남조선에 온갖 굴욕적이며 치욕적인 《문서》들이 란무해 인민들의 고통을 더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도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이다. 민족분열의 장본인인 외

여나수 없는 미공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남조선의 철강, 화학, 자동차, 건설, 전자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분야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제품들에 한해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뿐이 아니다. 외세의 민족분열책동에 추종하여 동

휘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70여년전 미국에 군대에 대한 투수권을 넘겨버치고 오 늘까지 외세의 전쟁수호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그런가 하면 《동맹》이라는 사물에 쫓겨 수많은 토지를 미국의 침략군사기지로 넘겨버치지 않으면 안되며 청장년들은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터, 분쟁마당들에 《대포발》으로 끌려가 무수

강요당하고 있다. 굴욕이면 이보다 더 큰 굴욕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부끄러움 모르고 그 무슨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있다.

사대와 외세 의존으로 파멸의 시궁창으로 정신없이 몰락해가는 남조선사회를 보니 우화 《마차부와 전차에 빠진 마차》가 떠오른다.

자신을 가리켜 《프랑스의 이소프》라고 자칭하였던 작가 라 퐁텐이 지금으로부터 수백년전에 쓴 우화, 그때 벌써 작가는 모든 자기 형에 의거할 때 모든 일이 제대로 된다는 교훈을 사람들에게 새겨주었다. 만약 그가 환생하여 외세의 존의 수렁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조선의 현실을 본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아마 남조선의 현실을 우화로 옮겨 세인에게 사대와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 파멸의 길이라는 교훈을 더 깊이, 더 생동하게 새겨줄 것이다.

통일을 불러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로 (6)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는 한덕수선생에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었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한 한덕수선생은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의장동지가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파괴보탄책동을 짓부시면서 총련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모두 감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높이 평가해주셨다. 또한 친히 오찬도 마련해주시고 오늘에 대단히 기쁜 날이라고,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한 한덕수선생과 대외대표단원들과 그리고 모든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과의 면담을 위해 이 잔을 들자고 하시며 음식을 손수 집어주시며 거듭 권하시었다.

그이께서 언제나 허물없이 대해주시는지 한덕수선생은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에 휩싸였다.

돌이켜보면 피나리보집밖에 뭘 수 없었던 그에게 총련중앙의 장의 증책을 맡겨주시고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로력영웅의 금별메달을 가슴에 달아주시였으며 국사를 논의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6남매를 키워오던 그가 1971년에 막내아들인 조국의 품으로 보내였을 때에는 그를 친자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며 키워주시었고 만물의 진도문제까지 보살피주시고 나라의 일꾼으로 내세워주신 그이이시었다.

어찌 이뿐이랴. 한덕수선생은 재일동포들의 대표로 높이 내세워주시며 귀중한 보좌제들도 보내

주시고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이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어 어머니수령님.

못잊을 그날 한덕수선생은 일련단심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께 총정대하리라 깊이 마음다지었다.

한덕수선생에 대한 어머니수령님의 육친적사랑은 끝이 없었다.

주체 83(1994)년 4월 하순 어머니수령님께서 조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있는 한덕수선생의 속소를 찾아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한의장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의 병세와 치료정형을 세세히 알아보시며 지금까지 한 의도 많은 치료를 잘 받아 다리를 꼭 고치고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살아야 한다고, 의장동지가 건강하여야 총련의 일이 잘될 수 있다고, 해외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운동에 한생을 바쳐오는 의장동지의 병치료를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덕수선생에게 둘러주시던 하해결은 어머니사랑은 위대한 장군님의 하여 계속 이어졌다.

그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공명결성 40돐을 앞두고 평양형공명대학을 한덕수평양형공명대학으로 명명해주시는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주시었다.

내를 이어 배풀어지는 절세위인들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한덕수선생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교포단체의 의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공화국의 위상을 더 높이 떨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2001년 2월 21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흐르지는 의식속에서 동포들과 후대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존경합니다. 하늘보다 더... 존경... 합니다...》

그러록 아끼시던 한덕수선생이 끝내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에서 진행할 장의교별식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인민문화궁전에서 국가적인 큰 규모의 추도행사를 진행할 때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후 한덕수선생의 유해가 조국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미리애국렬사릉의 높은 언덕에 부인의 유해와 나란히 안장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오늘 회세의 천출위인인신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어 한덕수선생을 비롯한 애국의 1세대에 의해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재일조선인운동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차고 있다.

절세의 위인들을 민족의 태양으로, 애국위업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시였기에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중권리를 실현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총련의 애국위업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며 한덕수선생의 이름과 공적도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한 대결공들의 말로

리명박역도는 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는 추악한 민족반역자, 동족대결광이다. 역도는 집권기간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죄악들로 하여 이미전에 우리 민족의 버림을 받았으며 지금은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가련한 처지에 있다.

리명박역도는 집권하기 전부터 6.15자주통일시대를 《북에 끌려다닌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모독하면서 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였다. 또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후에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용공리적문서》로,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을 《편협한 민족주의》, 《배리적민족주의》라고 모독하다 못해 《이전 정권이 북과 합의한 도행사를 진행할 때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후 한덕수선생의 유해가 조국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미리애국렬사릉의 높은 언덕에 부인의 유해와 나란히 안장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오늘 회세의 천출위인인신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어 한덕수선생을 비롯한 애국의 1세대에 의해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재일조선인운동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차고 있다.

절세의 위인들을 민족의 태양으로, 애국위업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시였기에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중권리를 실현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총련의 애국위업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며 한덕수선생의 이름과 공적도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는 것이다.

감옥에 처박힌 가련한 역도

며 지어 10.4선언에 도장을 찍은 전직《대통령》을 모해, 박해하여 감옥내 죽음으로 몰아넣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어렵다》고 떠들며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핵소동에 미쳐달렸으며 2010년 3월에는 《천안》호 침몰사건을 조작하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렸다.

역도는 2011년 12월 민족의 대국상을 알리는 공화국의 중대 보도가 나가자마자 《북도발가능성》을 체치면서 남조선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를 발령하고 전쟁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셨는가 하면 남조선 곳곳에 설치된 분향소들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조선본부 원로들의 조의방문단 평양행을 가로막았으며 평양을 조의 방문하였던 인사들을 《보안법》 위반혐의에 걸려 탄압하는 특대형반민족적범죄행위도 꺼리낌없이 저질렀다.

리명박역도는 집권기간 미국상선과 야합하여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를 비롯한 북침전쟁계획들을 더욱 도발적인것으로 보충완성하였으며 2010년 9월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대북군사정세》방향으로 확정하는 등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달렸었다. 또한 각종 북침전쟁각본에 따른 전쟁연습소동도 매일같이 벌여놓았는데 미국과 함께 5년간 강행한 《울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독수리》, 《호국》 등 각종 명칭의 북침전쟁연습은 천수백차례에 달하였다.

최근 지은데로 가가마련이다. 《통일은 도적처럼 온다.》고 하면서 동족대결에 미쳐달렸다가는 것 오명을 다 쓰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난 리명박역도는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지금 이 시각도 수인복을 입고 어둡컴컴한 감옥에 처박혀있는 리명박역도의 가련한 운명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고 력사의 흐름에 도전자들이 가당을 종착점이 어디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영진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있는 한덕수선생과 그의 부인의 묘비앞에서



리명박역도의 집권 5년간 인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온 남남땅에 자법했다.